

도중환 신임 문체부장관 후보자 지명

문화예술계 “시인 출신 일단 환영... 색안경 안졌으면”

도중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문화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인 출신'이라는 이유가 크다.

문화계는 “시인으로서 창작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화를 아는 장관으로서 성과위주, 전시행정 문화에 솔정책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육성하는 문화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다.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과학문화융합포럼 공동대표)은 “오바마, 프랑크 마크롱 등 세계적 정치인들이 문학성이 바탕이 되어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례에서 비춰볼 때 수 한국에서도 문학인 장관이 배출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큰 상실감을 겪었던 연극계는 환영 일색이다. 도 장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주인공으로 이를 청산하는데 적극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시인 출신으로 블랙리스트를 청산할 책임자”라고 봤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술의 본질 들여다보고 육성하는 정책 나올 것”

문체부, 기대 속 분주 '블랙리스트' 피해입은 연극계, '환영' 일색 '이해도 높은 인물' 출판·문학계도 '미소'

그간 '블랙리스트'에 시달려야 했던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관련 업계 등에서도 주무부처의 새 수장을 맞게 된 데 대해 저마다 환영하는 기색을 내비치면서 본격적인 진흥정책에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범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은 “블랙리스트로 몸살을 앓았던 만큼 ‘진보와 보수를 의식하지 않는 장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보수적이나 진보적 색깔로 예술인들을 색안경 끼고 보지 않고, 다양한 분야가 모인 문화부 인만큼 두루,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장관과 문화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국정농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문체부도 새 수장이 내정되자, 한결 가

벼워진 분위기다. 문체부는 오명을 씻고 새 정부의 기조에 부응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인 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기대감도 더욱 크다.

▲문체부, 기대 속 분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작부터 문체부 장관 1순위로 거론돼온 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별다른 술렁거림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현 정부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장관으로 오게 된 만큼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고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 연극계 '환영' 일색

박근혜 정부에서 연극계 검열에 저항하는 '광장극장 블랙리스트'의 극장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에서 108일간 노숙한 극단 고래의 이해성 연출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데 앞장 서 주셔서 문화예술인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잘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가 컸다.

이 연출은 “특히 블랙리스트 등 문화계 전반의 적폐 청산에 도 후보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화 행정적인 측면에서 편의 위주가 아닌 현장 예술가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판·문학계 “이해도 높은 인물” 반색 출판계는 “도중환 의원이 출판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강광실 사계절출판사 대표는 “출판계와 출판정책, 출판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과 독서 진흥 등에 대해서 꾸준히 같이 교감을 나누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이라며 “핵심 정책들이 출판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 입안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수 시인은 “시인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됐으니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관은 남다르리라고 생각된다”며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노인 등 국민 자살률이 1위에 치달고 있고 행복지수는 거의 꼴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치관을 수정하는데 앞장 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계 “미래기초 창조 선도” 희망

미술인들은 “현재 현재 문화계는 시급히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는 때보다 중요한 과도를 맞았다”며 “지원이 곧 육성이라는 단편적인 문화정책이 아닌 미래기초를 창조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장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화 등 대중문화계도 반기운 기색

대중문화계도 반기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운영·블랙리스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계는 문화인 출신 장관 지명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한 영화제작사 대표는 “문화계를 아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문화인들이 예전부터 바랐던 것이었다. 매우 잘된 일”이라며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침체된 영화계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영화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도 후보자는 문화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난 정권들보다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문화계 실상을 아는 분이 장관이 되면 우리 문화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케이블 채널 예능 PD는 “최소한 자기 검열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는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

▶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임진성 작가 개인전... 내달 5일까지

‘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

임진성 작가는 꿈을 통한 이상 세계로의 유희를 모티브로 작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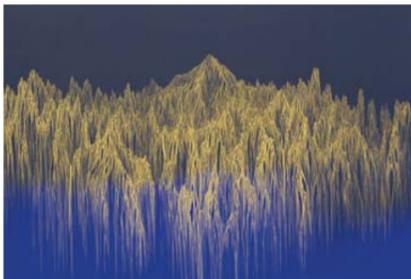
작가에게 꿈의 세계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간. 꿈속에서 찾아낸 유독 파이는 만물의 시원이자 영원한 존재인 산수이며, 작가는 이곳에서 피안의 시간을 가진다.

작업은 수묵을 바탕에 두고 금분을 이용하여 산수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향의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진한 먹빛과 자연스러운 번짐으로 표현되는 수묵의 여백은

꿈의 세계이자 이상과 현실의 경계이며, 영혼의 호흡이다. 또한 금분의 화려함과 절제된 선묘로 표현된 산수풍경은 피안의 세계인 유토피아를 의미한다.

임 작가는 전통적 기법과 독창적 화면구성의 혼용으로 수묵화의 기법과 섬세한 금분화의 기법은 전통을 따르지만 작품의 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다양한 시점은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한국·중국·캐나다 등 국내외에서 22회



의 개인전을 했으며, 한국근현대산수화전(전북도립미술관), 현대한국화 포지션전(강릉시립미술관), 1980년대와 한국미술전(전북도립미술관), 안전회화정신전(세종문화회관), 11인평론가가 추천하는 오늘의 진경전(경계정선기념관) 등을 비롯하여 200여회의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다. 유나아트문화재단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단원미술제·홍제미술제·행주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전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노후 대책 없다’(왼쪽)와 ‘꿈의 제인’.



약자·소수자들의 이야기, 스크린으로 상영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내달 1일부터 '전주 인디피크닉' '노후 대책 없다' 등 4편 선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에서는 6월 1일~7일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전주X인디피크닉 2017'이 열린다.

'인디피크닉'은 시기와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 독립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기획한 순회상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서울독립영화제2016에서 상영되었던 작품 중 분상 및 특별상의 영공을 얻었던 수상작과 관객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인기작, 이슈가 되었던 화제작 등을

모아 상영한다.

전주X인디피크닉 2017에서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특출한 연출력으로 풀어내 호평을 받은 네 편의 장편영화를 상영한다.

작품은 핑크 밴드로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사회적 연대가 돋보이는 유쾌한 다큐멘터리 <노후 대책 없다>(대상), 성소수자를 연기하며 진정한 이해가 갖는 무게감을 다룬 <분장>(새로운 선택상), 가솔청소년과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로 어떻게 살아 가아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꿈의 제인>(관객상), 부당한 노동에 맞서 권리를 찾기 위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가련이들>이다.

세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선정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비 2억원 확보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신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 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약 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특화 스토리 프로젝트 지원'은 지역특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작으로 연계하는 사업. 진흥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의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발굴 및 웹툰·캐릭터·애니메이션·웹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이에 진흥원은 순창군을 중심으로 순창군의 전략사업인 장류축제·장류체험관 등 지역 스토리 발굴 및 고도화를 통해 특화 콘텐츠를, 부안의 바지락·고창의 풍천장어·남원의 추어탕 등 지역 고유 음식 문화를 발굴해 지역 연계형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원주문화대, '페어플레이 주민평가단' 모집

(재)원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2017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와 과정에 동행할 '페어플레이 주민평가단'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페어플레이 주민평가단은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선정 단계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원주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닌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선발인원은 30명이다. /정해은 기자

바쁘고 지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 - 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